

2026.08.03.

VOL.600

글로벌바이오헬스산업동향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FOCUS

영국 MHRA의 규제 혁신 고도화와 글로벌 의약품 규제 위상 강화 전략

CONTENTS

※ 본 내용은 동향 조사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01

FOCUS

영국 MHRA의 규제 혁신 고도화와 글로벌 의약품 규제 위상 강화 전략

1

02

무역통상

미국, 브랜드 의약품 100% 관세 발효 ... 제네릭의약품은 2028년 시한

5

푸에르토리코, 미국 제네릭의약품 200% 관세 부과 예고에 직격탄 우려

5

AGC 바이오로직스,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와 장기 생산 계약 체결

5

중국 바이오텍 아웃라이선싱 역대 최고치 경신 ... 미국의 견제 강화

6

RPG 라이프 사이언스, 원료의약품 사업 분사 및 글로벌 수출 확대 추진

6

GE 헬스케어, 관세 환급·영상진단 수요에 힘입어 2분기 실적 호조

6

삼성바이오로직스, 펩타이드 전문기업 폴리펩타이드 18억 달러에 인수

7

필립스, 미국 관세 환급 2억 1,200만 달러 수령으로 2분기 실적 호조

7

우즈베키스탄-키페린 일라츠, 제약 분야 투자 및 기술 이전 협력 방안 논의

7

03

의료 인공지능

인실리코 메디슨-보라 파마슈티컬스, AI 신약 발굴부터 제조까지 연계한 통합 체계 구축

8

메드스트림 솔루션스, AI 기반 의료기기 심사 플랫폼 '백스코어'로 심사 절차 표준화 지원

8

베이지안 헬스, AI 기반 패혈증 조기 경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FDA 허가 획득

9

AISAP, 심장 초음파 5분 내 진단 입증하여 WHO 헬스케어 AI 보고서 사례 연구 선정

9

싱가포르, 자국 환자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위한 'SIMFONI' 출범

10

오픈AI 출신 연구원, AI 신약 발굴 스타트업 창업 추진 ... 기업 가치 20억 달러 협상 중

10

글로벌 디지털헬스 스타트업, 2026년 상반기 74억 달러 투자 유치

11

CHAI, 공중보건기관 대상 생성형 AI 책임 도입 지원 국가 이니셔티브 'PULSE' 출범

11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 환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월 평균

0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킹스칼리저런던 연구팀, 알츠하이머 DNA 손상 복구 최초 계열 치료제 'KCL-286' 성과 발표	12
베트남 제약시장, 2026년 100억 달러 돌파 전망 ... 고령화·규제 개혁이 성장 견인	12
미국 FDA 의약품평가연구센터, 2026년 가이드스 의제 업데이트 ... 신규 지침 추가	13
일라이 릴리, 최대 38억 달러 규모 아타이베클리 인수	13
독일 연방의회, 법정건강보험 재정개혁 법안 가결	14
YEIDA, 노이다에 의료기기단지를 조성해 메드테크 제조 허브로 육성	14
뉴러클 메디컬 테크놀로지, 세계 최초 상업용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이식 수술 시행	15
글로벌 특수 화장품 원료 시장, 2033년 223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15

05

의료서비스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바탕으로 중동 의료관광 허브로 성장 가속화	16
탄독생병원, 헬스테크엑스 아시아 2026에서 '가상 우선 심리스 케어' 모델 제시	16
아주라이트 메디컬 앤드 웰니스, 호주 수술관광객 대상 확장형 사후관리 프로그램 출시	17
미국 뉴욕, 중동·중남미·아시아 부유층 의료관광객 증가하며 럭셔리 헬스케어 허브로 주목	17
덴트스파 클리닉, 글로벌 치과 의료관광 환자 경험 부문 GHA 인증 획득	18
마야파다병원 쿠닝안,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인터내셔널 케어 컨시어지' 출시	18
홍콩중문대-광저우, 웨강아오 대만구 최초 글로벌 임상시험센터 설립	19
지텍 메디컬 투어리즘, 방글라데시 환자를 위한 중국 병원 연계 서비스 확대	19

06

글로벌 행사

FOCUS 영국 MHRA의 규제 혁신 고도화와 글로벌 의약품 규제 위상 강화 전략

1 MHRA 2025년~2026년 주요 성과와 글로벌 규제 위상 강화

역대 최고 규제 성과와 영국 생명과학 산업 기반 강화

- 영국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은 2025년~2026년에 총 921개 의약품을 허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2개 증가한 수치로 신규 의약품 39개를 포함한 모든 임상시험 및 국내 의약품 허가 신청을 목표 기한 내 100% 처리하는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함
- MHRA는 2025년~2026년에 불법 거래 의약품 2,850만 도스(Dose)를 회수하였으며, 이는 추정 가격 6,440만 파운드(한화 1,289억 2,172만 원) 규모로 영국 역대 최대 회수 기록으로 2025년 10월 노샘프턴(Northampton)에서 영국 최초로 확인된 비허가 체중 감량 주사제 불법 제조 공장을 적발·폐쇄하는 성과도 포함됨
- 영국 생명과학 산업은 1,000억 파운드(한화 200조 1,890억 원) 규모의 핵심 산업으로, MHRA의 규제 혁신은 영국 정부의 '생명과학 분야 계획(Life Sciences Sector Plan)*'과 '10개년 건강계획(10-Year Health Plan for England)**'의 핵심 이행 기제로 기능하며 영국을 글로벌 혁신 의약품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영국을 글로벌 생명과학 혁신의 중심지로 포지셔닝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수립한 산업 육성 전략

**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디지털 전환 △예방 중심 의료 △지역사회 의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영국 정부의 10개년 보건 개혁 계획

- MHRA는 2025년~2026년에 규제과학 혁신 및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지원을 위한 신규 연구 보조금 7,500만 파운드(한화 1,501억 4,175만 원)를 확보하였으며, 의약품 및 백신 평가에 활용되는 생물학적 기준물질(Biological Reference Materials)을 전 세계에 154,000개 이상 공급하여 글로벌 의약품 및 백신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 유지에 기여하였음

엑세스 컨소시엄 참여와 국제 규제 협력 확대

- MHRA는 2025년 8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로부터 세계 39번째 WHO 우수규제기관(WHO-Listed Authority, WLA)***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영국 규제 시스템의 품질과 견고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중저소득 국가(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LMICs)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글로벌 규제 협력의 핵심으로 기능하게 됨

*** WHO가 국제 의약품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 규제기관에 부여하는 공인 지위

- MHRA는 ①호주 ②캐나다 ③싱가포르 ④스위스와 함께 '엑세스 컨소시엄(Access Consortium)****'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규 활성 물질(New Active Substance, NAS) △제네릭의약품(Generic Drug)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첨단바이오의약품(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ATMPs) 분야의 국제 규제 조화를 주도하고 있음

**** 5개국 규제기관이 의약품 허가 심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 규제 협력체

| MHRA 2025년~2026년 주요 성과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의약품 허가	921개 허가, 신규 의약품 39개	임상시험 허가 신청 100% 목표 기한 내 처리
불법 의약품 회수	2,850만 도스 회수	영국 역대 최대 회수, 최초 불법 제조 공장 적발
WHO 우수규제기관 지정	세계 39번째 WHO 우수규제기관 지정	영국 규제 시스템의 국제적 공신력 확보
연구 보조금	7,500만 파운드(한화 1,501억 4,175만 원) 신규 확보	규제과학 혁신 및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지원
생물학적 기준물질	전 세계 154,000개 이상 공급	글로벌 의약품 및 백신의 품질·안전성·유효성 유지 기여

[자료] WHO, RAPS, GOV.UK

2 MHRA 규제 혁신의 핵심 제도 변화

AI 의료 규제 프레임워크와 희귀질환 치료제 규제 유연화

- MHRA는 2025년 9월 'AI 의료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into the Regulation of AI in Healthcare)*'를 출범하여 △의료계 △기술계 △학계 △환자단체 전문가들이 MHRA의 새로운 AI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자문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2026년 6월 △연구 △참여 △증거수집 결과를 발표하여 영국을 세계에서 AI 의료 규제가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국가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MHRA가 설립한 독립 비법정 자문 기구로 의료 분야 AI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목적으로 함
- MHRA는 이와 함께 AI 의료기기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프로그램인 'AI 에어락(AI Airlock)'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기업 △규제기관 △NHS가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등 첨단 AI 기술을 안전하게 시험하고 실질적인 규제 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신기술을 실제 규제 환경에 적용하기 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실험 공간
***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 이해 및 생성이 가능한 AI 모델로 의료기록 분석과 임상 의사결정 지원 등에 활용됨
- MHRA는 2026년 5월 21일 희귀질환 치료제 규제 프레임워크(Rare Disease Therapies Regulatory Framework)****를 발표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개시하였으며, 이는 기존 방식으로 개발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를 위해 ①탐색적 판매 허가(Investigational Marketing Authorisation, IMA)***** 경로 신설 ②개발 비용 절감 ③환자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함
****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IMA 경로를 신설하고 개발 단계부터 MHRA가 조기·반복적으로 관여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
***** 임상시험 승인과 판매 허가를 결합한 단일 허가 경로로 제한적 근거만으로도 환자 접근을 허용하고 이후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
- 영국 내 약 350만 명에 달하는 희귀질환 환자 중 치료제가 승인된 경우는 전체의 약 5%에 불과하며, 이번 규제 프레임워크가 도입될 경우 기존 10년~12년 소요되던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기간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

MHRA-NICE 연계 규제 경로 신설과 임상시험 규정 개편

- MHRA는 2026년 4월 1일 국립보건임상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과 'MHRA-NICE 연계 규제 경로(MHRA-NICE Aligned Pathway)'를 공식 출범하여 허가 심사와 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를 동시에 진행하는 체계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환자 접근 시기가 최대 6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예상됨
- 출범 시 27개 제약사가 조기 참여기업으로 등록하였으며 첫 번째 심사 결과는 2026년 6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이는 영국 정부의 생명과학 분야 계획 내 규제·시장 접근 개선 전략의 핵심 이행 조치로 여겨짐
- MHRA는 2026년 4월 28일 20년 만의 최대 규모 임상시험 규정 개편을 시행하였으며, △1상 임상시험 심사 기간 35일에서 14일로 단축 △저위험 임상시험 신속 승인 경로 신설 △컴퓨터 모델 시뮬레이션 기반 의약품 거동 예측 허용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됨
- 파일럿 운영 결과 평균 심사 기간이 7일로 목표치인 14일을 대폭 하회하였으며, 이는 영국을 글로벌 임상시험의 경쟁력 있는 거점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MHRA 규제 혁신의 핵심 제도 변화 요약

일시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2025년 9월	AI 의료 국가위원회	2026년 6월 권고안 발표	의료 AI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기반 마련
2025년~2026년	AI 에어락	영국 최초 AI 의료기기 규제샌드박스 확대 운영	혁신기업·규제기관·NHS 공동 AI 기술 시험 체계 구축
2026년 4월 1일	MHRA-NICE 연계 규제 경로	27개사 조기 참여	허가·HTA 동시 진행, 환자 접근 최대 6개월 단축
2026년 4월 28일	임상시험 규정 개편	1상 심사 14일 단축	20년 만의 최대 규모 개편, 평균 심사 7일 달성
2026년 5월 21일	희귀질환 치료제 규제 프레임워크	IMA 경로 신설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기대

[자료] NICE, ①GOV.UK, ②GOV.UK, ③GOV.UK

3 MHRA 규제 혁신의 글로벌 파급효과와 규제 경쟁 구도 변화

영국 생명과학 산업 구조 변화와 글로벌 규제 경쟁 구도

- MHRA의 규제 혁신은 영국 생명과학 산업의 투자 유치와 직결되고 있으며, 영국을 글로벌 생명과학 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수립된 생명과학 분야 계획(Life Sciences Sector Plan) 시행 첫 해(2025년~2026년)에 30억 파운드(한화 6조 57억 원) 이상의 투자가 유치됨
- 영국 정부는 2035년까지 생명과학 산업 규모를 410억 파운드(한화 82조 775억 원)로 확대하고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생명과학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MHRA의 규제 혁신이 단순한 허가 효율화를 넘어 영국의 산업 전략 목표와 직접 연계된 것임을 의미함
- MHRA는 2026년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의료기기 규제 협력 강화를 공식화하여 양국 간 중복 심사 절감과 허가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영국-미국 의약품 협약(UK-US Pharmaceuticals Arrangement)을 체결하여 영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미국 수출에 대해 최소 3년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건을 확보함
- 한편 유럽 제약산업협회(European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Associations, EFPIA)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20년~2023년 허가된 신약 가용성 순위에서 6위에 그쳐 규제 혁신의 실질적 성과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존재하며, 미국·EU 대비 생명과학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유치에서 구조적 열위가 잔존하는 상태임

* 외국 기업·투자자가 타국 기업에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공장 설립 △합작법인 설립 △인수합병 등을 통해 실질적 경영 통제권을 확보하는 방식의 투자

WHO 우수규제기관 확대가 글로벌 규제 조화에 미치는 함의

- MHRA의 우수규제기관 지정으로 중저소득 국가(LMICs)들이 MHRA 허가 결정을 자국 심사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규제 의존(Regulatory Reliance)** 절차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영국에서 허가된 의약품이 별도의 전면 심사 없이 다수 국가에서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어 영국을 혁신 의약품의 글로벌 최초 출시 거점으로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

** 자국 규제기관이 다른 국가 규제기관의 허가 결정 및 심사 자료 등을 자국 허가 심사의 근거로 활용하는 국제 규제 협력 방식으로 심사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 2025년 8월에 △MHRA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 및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PMDA)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가 동시에 우수규제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요 선진 규제기관 간 규제 협력과 업무 공유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여겨짐
- 현재 전 세계 70% 국가가 의약품 규제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수규제기관 네트워크 확대는 해당 국가의 의약품 허가 심사 역량을 보완하는 핵심 기제로 기능하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우수규제기관들의 지위 강화는 글로벌 제약사의 아시아 임상시험 및 허가 전략에 새로운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WHO 우수규제기관 신규 지정과 글로벌 규제 조화 기대 효과



4 MHRA 규제 혁신의 과제와 향후 전망

브렉시트 이후 MHRA 독립 규제 체계의 도전과제

- 브렉시트(Brexit)* 이후 MHRA는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체계에서 분리되어 독립 규제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EU 및 영국 양 시장 진출을 위해 EMA와 MHRA에 이중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2020년 1월 31일에 영국이 EU에서 공식 탈퇴한 사건

- 또한, 규제 분기(Regulatory Divergence)**로 인해 별도의 임상시험 승인 및 안전성 보고 체계가 요구되어 비용과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소규모 바이오텍(Biotech)의 EU 및 영국 동시 진출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과제로 지목되고 있음

** 영국과 EU의 의약품 △규제 △기준 △절차 등이 점차 달라지는 현상으로 양 시장에 진출하려는 제약사의 이중 허가 부담을 가중시킴

- 영국의 신약 가용성 순위가 6위에 머무는 것은 자발적 제약 기여 제도(Voluntary Scheme for Branded Medicines Pricing, Access and Growth, VPAG)***와 제약사의 투자 유인 간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규제 혁신과 별개로 시장 접근성 측면의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

*** △영국 정부 △NHS △제약업체가 합의한 브랜드 의약품 가격 통제 자율협약으로 NHS의 브랜드 의약품 지출 증가율을 연간 한도 내로 제한하여 NHS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

- EU가 의약품법(Pharmaceutical Legislation)**** 개혁을 추진하면서 영국과 EU 간 규제 기준 차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MHRA는 이에 대응하여 국제인정절차(International Recognition Procedure, IRP)*****를 통해 FDA·EMA 등 주요 규제기관의 허가 결정을 활용하는 규제 의존 절차를 확대하고 있음

**** EU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규제 전반의 현대화 개혁 패키지로 △회귀질환 의약품 인센티브 △데이터 보호 기간 △규제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함

*****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규제기관의 허가 결정을 기반으로 MHRA가 신속하게 영국 허가를 부여하는 절차로 2024년 1월 브렉시트 이후 도입된 주요 규제 혁신 경로 중 하나

MHRA 2030 전략과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시사점

- MHRA는 2026년 9월 'MHRA 2030 전략(MHRA 2030 Strategy)'을 발표할 예정으로, ①환자 안전 강화 ②NHS 우선과제 지원 ③과학적 혁신 촉진 ④생명과학 분야 경제 성장 기여를 4대 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연계 규제 경로 △의료기기 규제 개혁 △AI 기반 규제 혁신 등이 핵심 이행 과제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MHRA는 싱가포르-영국 규제 혁신 협력 통로(Singapore-UK Regulatory Innovation Corridor)를 포함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7년 4월까지 의료기기 분야 CE 마킹 영구 인정 및 국제 규제 의존·인정 확대를 포함한 의료기술 규제 개혁 패키지를 시행할 예정으로 글로벌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영국 시장 진입 장벽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은 MHRA의 규제 혁신이 가져오는 변화를 임상시험 및 허가 전략에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IRP를 통한 국내 허가 결과의 영국 시장 활용 가능성 △연계 규제 경로 출범으로 영국 시장 진입 소요 기간 단축 등 MHRA 혁신 제도의 국내 도입 검토가 중장기적 정책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Bentham Science, 2025.01.13.; Pharmaphorum, 2025.01.21.; GOV.UK, 2025.07.16.; WHO, 2025.08.07.; Labmate Online, 2025.08.11.; GOV.UK, 2026.01.26.; Assyro AI, 2026.02.03.; DLA Piper, 2026.02.18.; NICE, 2026.03.17.; Pharmaceutical Technology, 2026.03.19.; GOV.UK, 2026.04.01.; G&L Scientific, 2026.04.13.; Fieldfisher, 2026.04.16.; GOV.UK, 2026.04.27.; Health Research Authority, 2026.04.28.; GOV.UK, 2026.04.28.;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2026.05.12.; GOV.UK, 2026.05.21.; The Pharmaceutical Journal, 2026.05.21.; GOV.UK, 2026.06.11.; GOV.UK, 2026.07.08.; Society of Chemical Industry, 2026.07.09.; GOV.UK, 2026.07.16.; RAPS, 2026.07.20.; Healthcare Digital, 2026.07.21.



미국, 브랜드 의약품 100% 관세 발효 ... 제네릭의약품은 2028년 시한

U.S. sets 2028 deadline for generic drug tariffs as 100% branded drug tariff takes effect

- 무역법 232조(Section 232)에 근거한 특허 브랜드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APIs)에 대한 100% 관세가 7월 31일 자정부터 △미국 제약사 애브비(AbbVie) △미국 제약사 화이자(Pfizer)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 등 17개 대형 제약사에 우선 발효됐으며,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나머지 수입업체에는 2026년 9월 29일부터 적용됨
- 이미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약가 협정과 온쇼어링(Onshoring)* 협정을 체결한 기업은 2029년 1월까지 0% 관세를 적용받으며, 현재까지 13개 이상의 기업이 협정을 체결함
- *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의 제조 시설을 자국 내로 이전하는 전략
- 제네릭의약품(Generic Drug)에는 2028년 8월까지 관세가 유예되나 ①2028년 100% ②2029년 200%로 단계적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업계는 제조 이전에 최소 4년~7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미국 의약품 공급망 재편이 글로벌 의료 접근성과 가격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주목됨

[Axios, 2026.07.28.;TechTimes, 2026.07.29.]



푸에르토리코, 미국 제네릭의약품 200% 관세 부과 예고에 직격탄 우려

Puerto Rico faces major impact as U.S. announces up to 200% tariffs on generic drug imports

- 미국이 2028년 8월부터 수입 제네릭의약품(Generic Drug)에 최대 200%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푸에르토리코 소재 경제 연구기관 에스투디오스 테크니코스(Estudios Técnicos)는 2025년 기준 32억 5,000만 달러(한화 4조 8,666억 원) 규모의 제약 제품을 수입하는 푸에르토리코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함
- 푸에르토리코 제약 수입의 46%가 제네릭의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네릭의약품 제조사들은 낮은 마진 구조상 미국 내 공장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됨
- 미국 내 처방전의 90%를 차지하는 제네릭의약품에 200%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의약품 접근성과 가격 구조에 변화가 예상되며, 202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도 변수로 지목됨

[Periódico La Perla, 2026.07.24.;Western Journal PR, 2026.07.27.]



AGC 바이오로직스,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와 장기 생산 계약 체결

AGC Biologics signs long-term commercial manufacturing agreement with global biopharmaceutical company

- 일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AGC 바이오로직스(AGC Biologics)가 글로벌 주요 바이오제약사와 장기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기간 동안의 총 매출은 수백억 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계약에 따라 AGC 바이오로직스는 2027년 우수의약품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일본 요코하마(Yokohama) 신규 CDMO 시설에서 상업용 의약품 생산을 담당하게 되며, 동 시설은 ①포유류 세포 유래 바이오의약품 ②mRNA 치료제 ③세포 치료제 3개 분야를 통합 생산할 수 있는 복합 CDMO 시설로 구축될 예정임
- 이번 계약은 AGC 바이오로직스의 글로벌 CDMO 네트워크를 △일본 △미국 △유럽으로 확장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The Manila Times, 2026.07.28.;AGC, 2026.07.28.]



중국 바이오텍 아웃라이선싱 역대 최고치 경신 ... 미국의 견제 강화

China's biotech out-licensing hits record high as U.S. scrutiny intensifies

- 영국 데이터 분석 기업 글로벌데이터(GlobalData)에 따르면 2026년 1월~6월 중국 혁신 신약 아웃라이선싱(Out-licensing)*의 거래 규모가 1,100억 달러(한화 164조 7,173억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글로벌 바이오텍(Biotech) 거래의 핵심 주체로 부상함

* 자사의 의약품 특허 및 개발 권리를 해외 제약사에 판매하고 △선금금 △단계별 성과금 △판매 수익 배분금을 받는 계약 방식

- 미국은 중국 바이오텍의 부상이 △의약품 공급망 안보 △경제 경쟁력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우려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 바이오텍 기업에 대한 투자를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임

**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미국 정부 기관

- 중국 바이오텍의 글로벌 아웃라이선싱 급증이 미국의 제약 공급망 자립 정책 및 중국 견제 기조와 충돌하고 있어, 미국-중국 바이오텍 협력과 규제 갈등이 글로벌 신약 개발 생태계의 핵심 변수로 부상함

[GlobalData, 2026.07.28.;Discover Pharma, 2026.07.28.]



RPG 라이프 사이언스, 원료의약품 사업 분사 및 글로벌 수출 확대 추진

RPG Life Sciences spins off APIs business and pursues global export expansion

- 인도 제약사 RPG 라이프 사이언스(RPG Life Sciences)가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 사업 부문을 자회사 RPG 액티브 파마(RPG Active Pharma)로 분사하고 헬스케어 전문 투자회사 인베이션트(InvAscent)로부터 총 최대 7억 루피(한화 109억 4,8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함
- RPG 라이프사이언스는 멕시코 시장에서 일부 원료의약품(APIs)의 점유율 약 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본 △영국 △베트남 △필리핀 △아프리카 시장에도 원료의약품(APIs)을 공급하고 있고 매출의 85%가 수출에서 발생함
- RPG 라이프사이언스는 2027년~2028년 회계연도까지 매출 10억 루피(한화 156억 4,000만 원) 달성을 목표로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원료의약품(APIs) 기업 인수도 검토 중임

[Business Standard, 2026.07.30.;Pharmabiz, 2026.07.30.]



GE 헬스케어, 관세 환급·영상진단 수요에 힘입어 2분기 실적 호조

GE HealthCare posts strong Q2 2026 earnings driven by tariff refunds and imaging demand

- 미국 의료기기 기업 GE 헬스케어(GE HealthCare)가 2026년 2분기 순이익 5억 6,100만 달러(한화 8,400억 원)를 기록해 전년 동기 4억 8,600만 달러(한화 7,277억 원) 대비 15.4% 증가했으며, 영상진단기기 및 제약 진단 분야의 강한 수요와 함께 1억 2,900만 달러(한화 1,931억 원) 규모의 관세 환급이 실적 개선을 견인함
- 미국 연방대법원(United States Supreme Court)이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 기반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은 기업들이 일시적 실적 개선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GE 헬스케어는 관세 불확실성 지속에 대비해 일부 제품의 미국 내 생산 이전도 검토하고 있음
- 관세 환급이 의료기기 기업의 단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으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의료기기 공급망 재편과 미국 내 생산 현지화 전략이 업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Quartz, 2026.07.29.;Yahoo Finance, 2026.07.29.]



삼성바이오로직스, 펩타이드 전문기업 폴리펩타이드 18억 달러에 인수

amsung Biologics acquires peptide specialist PolyPeptide for \$1.8 billion

- 한국 삼성바이오로직스(Samsung Biologics)가 스위스 펩타이드(Peptide) 전문 위탁개발생산기업(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CDMO)*인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를 18억 달러(한화 2조 6,953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발표했으며, 이는 한국 바이오제약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 인수임

* 신약의 △개발 △임상시험 △제조까지 전 과정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업

- 폴리펩타이드는 △인도 △프랑스 △미국 등 6개 거점에 약 1,4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며, 2025년 매출 3억 8,900만 유로(한화 6,651억 원)로 전년 대비 16% 성장했음
- 이번 인수는 GLP-1(Glucagon-Like Peptide-1) 계열 △당뇨 △비만 치료제를 포함한 펩타이드 기반 의약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펩타이드 분야 역량 확보와 글로벌 생산 거점 다변화를 통한 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주목됨

[London Insider, 2026.07.26.;Life Sci Voice, 2026.07.26.]



필립스, 미국 관세 환급 2억 1,200만 달러 수령으로 2분기 실적 호조

Philips posts strong Q2 results after receiving \$212 million U.S. tariff refund

- 네덜란드 의료영상기기 전문기업 필립스(Philips)가 2026년 2분기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미국 관세 환급금 2억 1,200만 달러(한화 3,174억 원)를 수령해 영업이익 6억 9,400만 달러(한화 1조 392억 원)를 기록했으며, 관세 환급이 완료됨에 따라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
- 필립스는 관세 환급이라는 일회성 수입을 제외하면 원가 상승과 관세 부담으로 실질 수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장기적 관세 리스크 완화를 위해 1억 5,000만 달러(한화 2,246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과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관세 환급이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의 단기 실적을 견인하고 있으나, 향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기 공급망 현지화와 비용 절감 전략이 업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Yahoo Finance, 2026.07.29.;Radiology Business, 2026.07.29.]



우즈베키스탄-키페린 일라츠, 제약 분야 투자 및 기술 이전 협력 방안 논의

Uzbekistan and Kiperin İlaç discuss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cooperation in pharmaceutical sector

-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Uzbekistan)가 튀르키예 제약·건강기능식품 기업 키페린 일라츠(Kiperin İlaç) 대표단과 제약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 우즈베키스탄 측은 △자국의 투자 환경 △생산 현지화 기회 △정부 지원 조치 △세금 및 관세 혜택을 소개했으며, 양측은 △제약 분야 공동 프로젝트 추진 △투자 및 기술 이전 협력 확대 △양국 기업인 간 직접 교류 강화에 합의함
- 이번 협의는 글로벌 제약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술 이전을 통해 중앙아시아 제약 산업의 신흥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됨

[UzDaily, 2026.07.30.;UzA, 2026.07.31.]

01 인실리코 메디슨-보라 파마슈티컬스, AI 신약 발굴부터 제조까지 연계한 통합 체계 구축

- 미국 AI 신약 개발 기업 인실리코 메디슨(Insilico Medicine)과 대만 글로벌 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CDMO) 보라 파마슈티컬스(Bora Pharmaceuticals)가 다중 표적 기반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으며, 인실리코 메디슨의 AI 신약 발굴 플랫폼 '파마.AI(Pharma.AI)*'와 보라 파마슈티컬스의 글로벌 △개발 △제조 △품질 △상업화 역량을 결합해 신약 발굴부터 상업화까지 통합하는 차세대 신약 개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표적 발굴 △생성형 화학(Generative Chemistry) △분자 최적화를 아우르는 인실리코 메디슨의 AI 신약 발굴 플랫폼

- 이번 제휴의 잠재적 협력 규모는 최대 25억 달러(한화 3조 7,43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실리코 메디슨은 보라 파마슈티컬스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역량 강화와 AI 리터러시(AI Literacy)** 교육을 지원하고 △제조 △공급망 △유통 △기업 운영 전반에 AI를 도입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까지 협력 범위에 포함됨

** AI 기술을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

- 기존 신약 발굴 방식에서 전임상 후보물질(Preliminary Candidate, PCC)*** 선정까지 통상 2.5년~4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인실리코 메디슨은 평균 12개월~18개월로 단축했으며, 2021년 이후 선정된 31개의 전임상 후보물질 중 13개가 임상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 IND) 승인을 획득함

*** 전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어 인체 임상시험 진입이 결정된 신약 후보 분자

- 인실리코 메디슨은 이번 제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약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사례라고 밝혔으며, 보라 파마슈티컬스 회장은 이번 제휴로 단순 의약품 제조를 넘어 신약 발굴까지 아우르는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nsilico Medicine, 2026.07.14.;First Word Pharma, 2026.07.15.]

02 메드스트림 솔루션스, AI 기반 의료기기 심사 플랫폼 '백스코어'로 심사 절차 표준화 지원

- 병원마다 심사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스타트업 메드스트림 솔루션스(MedStream Solutions)가 개발한 AI 기반 의료기기 평가 플랫폼 '백스코어(VACScore)'가 병원 가치분석위원회(Value Analysis Committee, VAC)*의 의료기기 심사 절차를 표준화하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음

* 병원에서 새로운 의료기기 및 소모품의 도입 여부를 △임상적 효과성 △비용 효율성 △안전성 측면에서 검토하는 다학제 의사결정 위원회

- 백스코어는 의료기기 관련 데이터를 △수집 △집계 △분석해 점수화하고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며, 병원이 수동으로 심사할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심사 기간을 수분 내로 단축할 수 있음
- 또한, 의료기기 제조사와 의사 간의 수수료 및 강연료 등 재정적 관계를 자동으로 탐지해 공개하는 기능을 내장했으며 이는 재정적 이해관계가 기기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장치임

- 소규모·혁신 의료기기 제조사가 대형 제조사 중심의 공동구매조직(Group Purchasing Organization, GPO)** 계약 구조로 인해 병원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플랫폼이 지원하는 표준화된 심사 체계는 임상적으로 우수한 기기의 공정한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다수의 병원이 공동으로 구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대형 제조사 위주의 계약 구조를 형성함

- 표준화된 AI 기반 심사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진입 경로를 마련하려는 백스코어의 접근 방식은 병원 구매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전망이다

[Teknovation, 2026.07.16.;VACScore, 2026.07.23.]

03 베이지안 헬스, AI 기반 패혈증 조기 경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FDA 허가 획득

- 미국 AI 헬스케어 기업 베이지안 헬스(Bayesian Health)가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한 AI 기반 패혈증(Sepsis)* 조기 경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베이지안 헬스 패혈증 플래깅 디바이스(Bayesian Health Sepsis Flagging Device)’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함

* 감염에 대한 신체의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주요 장기 기능이 저하되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진단 △치료 △예방 목적을 수행하는 의료기기

- 베이지안 헬스 패혈증 플래깅 디바이스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의 △동반 질환 △주요 호소 증상(Chief Complaint)*** △검사 수치 △활력징후(Vital Signs) △처방·투약 이력 등을 AI로 분석해 24시간 내 패혈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를 사전에 탐지하고 EHR 내 ‘패혈증 위험 높음(Sepsis Risk High)’ 플래그(Flag)****를 자동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함

***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주된 증상 또는 불평 사항으로, 초기 임상 판단의 기준이 됨

****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시스템이 의료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자동으로 표시하는 경고 표시

- 기존 FDA 허가 패혈증 기술은 의료진이 먼저 패혈증을 의심한 후 바이오마커(Biomarker)***** 혈액 검사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식인 반면, 베이지안 헬스 시스템은 의료진 의심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해 최대 2시간~48시간 빠른 조기 탐지가 가능하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에 게재된 연구에서 사망률을 약 20%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음

***** 혈액 등에서 측정되는 생물학적 지표로, 질환의 △존재 △진행 △치료 반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됨

- 이번 FDA 허가는 수십 년간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축적된 임상 AI 연구가 실제 의료 현장으로 이전된 사례로, AI 기반 선제적 패혈증 모니터링이 중환자 임상 표준으로 자리잡는 전환점으로 주목됨

[Medical Design and Outsourcing, 2026.07.17.;MedIndexer, 2026.07.17.]

04 AISAP, 심장 초음파 5분 내 진단 입증하여 WHO 헬스케어 AI 보고서 사례 연구 선정

- 이스라엘 AI 의료기기 기업 에이아이샵(AISAP)의 AI 기반 현장 초음파(Point of Care Ultrasound, POCUS)* 플랫폼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신규 보고서 「이론과 실천의 연결(Bridging Theory and Practice)」 사례 연구로 선정됐으며, 이스라엘 셰바 메디컬 센터(Sheba Medical Center)에서의 임상 적용 성과가 주요 내용으로 소개됨

* 중환자실 및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서 즉각적인 진단 목적으로 침상 옆에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

- 셰바 메디컬 센터에서 2022년 7월~2023년 12월 6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연구에 따르면 초음파 비전문의가 에이아이샵을 활용해 전체의 29%(193명)에서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심장 이상 소견을 확인했으며, 이 중 22%(147명)는 기존에 진단되지 않았던 새로운 소견이었음

- 또한, 진단 정확도 검증에서는 △좌심실 기능 저하 탐지 민감도(Sensitivity)** 100%·특이도(Specificity)*** 96.9% △대동맥 협착증(Aortic Stenosis)**** 탐지 민감도 100%·특이도 87.6%를 기록했으며 검사 시간은 5분 이내였음

** 실제 질환이 있는 환자를 양성으로 정확히 탐지하는 비율

*** 실제 질환이 없는 환자를 음성으로 정확히 탐지하는 비율

**** 심장의 대동맥 판막이 좁아져 혈류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조기 발견이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초음파 비전문의도 AI를 통해 전문가 수준의 심장 진단을 현장에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AI 기반 POCUS가 의료 현장의 새로운 진단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됨

a'sap

[IPR Newswire, 2026.07.15.;AOL, 2026.07.15.]

05 싱가포르, 자국 환자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위한 'SIMFONI' 출범

- 싱가포르 임상연구혁신컨소시엄(Consortium for Clinical Research and Innovation, Singapore, CRIS) 산하 국가 프로그램 '심포니(Singapore Integrated Medical Foundation and Innovation, SIMFONI)**가 주로 서양 인구 데이터 위주로 학습된 기존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싱가포르 △인구 특성 △현지 질환 패턴 △임상 지침에 최적화된 헬스케어 AI 모델을 자체 △구축 △테스트 △배포하는 국가 주도 프로그램을 출범했음



* 싱가포르 의료 현장에 적합한 임상 AI 도구를 개발 및 배포하는 국가 주도 프로그램

** 대규모 데이터로 사전 학습되어 다양한 임상 과제에 적용 가능한 범용 AI 모델

- SIMFONI는 초기에 ①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심장대사 질환 일차의료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②백내장·망막 질환·녹내장 등 안과 질환 대상 다중 모달 AI(Multimodal AI)*** 두 분야에 집중하며, 추후 다른 진료과로 확장할 계획임

*** △의료 영상 △임상 기록 △검사 수치 등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AI 방식

- 또한, 처음부터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대신 기존 파운데이션 모델을 싱가포르 임상 환경에 맞게 조정 및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의사가 최종 결정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AI가 진료 시점에 여러 환자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됨
- 이 프로그램은 △고령화 △만성 질환 증가 △의료 인력 과부하라는 싱가포르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과 연동해 전국 의료 현장에 보급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삼고 있음
- SIMFONI 출범은 글로벌 AI 모델의 지역 편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 인구 및 임상 데이터 기반의 헬스케어 AI를 구축하려는 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짐

[Straits Times, 2026.07.09.;Healthcare IT News, 2026.07.19.]

06 오픈AI 출신 연구원, AI 신약 발굴 스타트업 창업 추진 ... 기업 가치 20억 달러 협상 중

- 미국 AI 기업 오픈AI(OpenAI) 출신 연구원이 기존 허가 의약품의 새로운 적응증을 AI로 발굴하는 신약 개발 스타트업 창업을 추진 중이며, 미국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라이트스피드(Lightspeed)가 주도하는 2억 달러(한화 2,994억 원) 규모 투자 유치를 기업 가치 20억 달러(한화 2조 9,948억 원)로 협상 중임
- 이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기존 허가 의약품의 새로운 적응증 발굴(Drug Repurposing)*은 처음부터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의약품을 활용해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과거 임상에서 실패했던 의약품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 이미 FDA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기존과 다른 질환이나 적응증에 활용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신약 개발 전략

- 비슷한 시기 오픈AI 출신 연구원이 공동창업한 미국 AI 신약 발굴 스타트업 차이 디스커버리(Chai Discovery)와 영국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 분사 기업 아이소모픽 랩스(Isomorphic Labs)도 잇달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AI 신약 발굴 분야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음
- 오픈AI 출신 연구원들이 잇달아 AI 신약 발굴 분야에 뛰어드는 흐름은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술이 생명과학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생성형 AI(Generative AI)***를 활용한 신약 발굴 투자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해 △언어 이해 △생성 △추론이 가능한 대규모 AI 모델

***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분자 구조 △텍스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AI 기술

[TechCrunch, 2026.07.14.;Yahoo Finance, 2026.07.15.]

07 글로벌 디지털헬스 스타트업, 2026년 상반기 74억 달러 투자 유치

- 미국 디지털헬스 전문 분석기관 록 헬스(Rock Health)의 「2026년 상반기 펀딩 및 시장 개요(H1 2026 Funding and Market Overview)」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글로벌 디지털헬스 스타트업의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총액은 74억 달러(한화 11조 831억 원)로 2025년 상반기 64억 달러(한화 9조 5,835억 원) 대비 10억 달러(한화 1조 4,974억 원) 증가했고 총 244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음
- 19개 기업이 1억 달러(한화 1,497억 원) 이상의 메가딜(Megadeal)* 20건을 유치했으며, 주요 사례로는 △미국 웨어러블 기업 읍(Whoop) 5억 7,500만 달러(한화 8,610억 원) △미국 AI 임상 플랫폼 에이독(Aidoc) 1억 5,000만 달러(한화 2,246억 원) △미국 원격 정신건강 기업 토키아트리(Talkiatry) 2억 1,000만 달러(한화 3,145억 원) 등이 있음
- * 1억 달러(한화 1,497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유치 건
- 임상 적응증별로는 정신건강이 최다 투자 분야를 유지했으며 비만 및 체중 관리가 2위로 GLP-1 (Glucagon-Like Peptide-1) 시장 성장과 함께 관련 분야 투자도 확대되었고, 웰니스(Wellness) 및 수명 연장 분야의 실험적 펩타이드(Peptide) 투자도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
- 록 헬스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도메인 전문성 △워크플로(Workflow) 장악력 △현장 서비스 역량 △파트너십·네트워크 효과가 디지털헬스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함
- AI가 디지털헬스 분야의 투자 환경을 빠르게 재편하면서 단순 AI 기능 보유 여부가 아닌 AI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 역량을 갖춘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Rock Health, 2026.07.13.;Fierce Healthcare, 2026.07.13.]

08 CHAI, 공중보건기관 대상 생성형 AI 책임 도입 지원 국가 이니셔티브 'PULSE' 출범

- 미국 비영리 헬스케어 AI 거버넌스 기관 헬스 AI 연합(Coalition for Health AI, CHAI)이 미국 공중보건기관의 생성형 AI(Generative AI) 책임 도입을 지원하는 국가 이니셔티브 '펄스(Public health Use case and Learning Scaling Engine, PULSE)*'를 출범함



* 공중보건기관이 생성형 AI 도구를 △평가 △도입 △확장하도록 지원하는 국가 프로그램

-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CHAI의 리더십 위원회가 참여 기관을 선정하며 글로벌 경영 컨설팅·기술 서비스 기업 액센추어(Accenture)의 AI·공중보건 전문가와 협력해 ①약물 유행 예측 ②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DoH)** 매핑 ③지역사회 피드백 분석 ④다국어 번역 ⑤임상 데이터 자동 검색 등 5가지 핵심 활용 사례 플레이북(Playbook)을 개발할 예정임

**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교육 △주거 △환경 등 비의료적 요인

- 올 가을 10개 선정 기관에서 파일럿을 시작하고 내년에 플레이북을 공개하는 것이 목표이며 미국 카운티·시 보건 공무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unty and City Health Officials, NACCHO)에 따르면 현재 지역 보건기관의 약 40%가 AI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도입 지원 수요가 높은 상황임
- CHAI는 COVID-19가 공중보건 인프라의 기술 투자 부족을 드러낸 선례를 들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거버넌스와 책임 체계를 갖춘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번 PULSE 출범은 공중보건 영역에서 생성형 AI 도입이 개별 실험 단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확산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됨

[Fierce Healthcare, 2026.07.16.;CHAI, 2026.07.16.]

09 킹스칼리지런던 연구팀, 알츠하이머 DNA 손상 복구 최초 계열 치료제 'KCL-286' 성과 발표

- 영국 킹스칼리지런던(King's College London)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동물 실험에서 혁신신약(First-in-Class)* 경구 소분자(Small Molecule) 치료제 'KCL-286'이 뉴런의 DNA 이중 가닥 절단(DNA Double-Strand Break, DSB)**을 복구하고 신경 염증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함

*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작용 기전으로 개발된 최초의 약물

** DNA 이중 나선 양쪽이 모두 끊어지는 심각한 유전체 손상으로, 신경세포에 축적될 경우 신경 퇴행성 질환 진행과 연관됨

- KCL-286은 비타민 A 신호 전달 경로의 핵심 조절 단백질인 RAR-베타(Retinoic Acid Receptor Beta, RAR-Beta)***를 활성화해 △시냅스(Synapse)**** 기능 장애 △신경 염증 △신경 손상 등 알츠하이머에서 교란되는 여러 경로를 동시에 복구하며, 단일 표적이 아닌 뇌의 자체 복구 기전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Amyloid Plaque) 제거나 타우(Tau) 단백질 억제에 집중해 온 기존 치료제와 차별화됨

*** 비타민 A 유도체인 레티노산(Retinoic Acid)에 반응해 신경계 유지·복구 관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핵수용체

**** 신경세포 간 신호를 전달하는 접합부로, 기억 및 학습 등 뇌 기능의 핵심 구조

- 또한,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이미 형성된 후기 단계에서도 뇌 복구 효과가 관찰됐으며 KCL-286은 원래 척수 손상 치료 목적으로 개발돼 임상 1상에서 약물 관련 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 및 약동학(Pharmacokinetics)***** 데이터가 이미 확보된 상태임

***** 약물이 체내에서 △흡수 △분포 △대사 △배설되는 과정을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

- 연구팀은 KCL-286이 DNA 손상과 만성 염증이라는 공통 병리를 공유하는 다양한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적용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실제 환자에서 복구 기전이 활성화되는지 검증하는 개념 증명(Proof-of-Concept) 임상을 다음 단계로 계획하고 있음
- 이번 연구는 아밀로이드·타우 중심의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흐름에서 벗어나 DNA 손상 복구를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제시한 사례로, 인체 안전성 데이터를 이미 확보해 개발 리스크를 낮춘 점이 핵심임

[Drug Discovery News, 2026.07.14.;Science Daily, 2026.07.17.]

10 베트남 제약시장, 2026년 100억 달러 돌파 전망 ... 고령화·규제 개혁이 성장 견인

- 베트남 사이공-하노이 증권(Saigon-Hanoi Securities, SHS)의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제약시장은 2015년 34억 달러(한화 5조 912억 원)에서 2023년 70억 달러(한화 10조 4,820억 원)로 8년 만에 약 2배 성장했으며 2026년에는 100억 달러(한화 14조 9,743억 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 시장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비감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 NCD) 수요 증가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가입률 95.2% 달성 △2025년 7월 발효된 개정 약사법(Law on Pharmacy) 등 규제 개혁이 꼽히며, 1인당 의약품 지출은 2025년 65달러(한화 97,333원)에서 2030년 90달러(한화 134,769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 전체가 의료비 부담 없이 필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료 보장 체계

- 글로벌 특허 절벽(Patent Cliff)**이 2030년까지 약 2,070억 달러(한화 309조 9,680억 원) 규모의 의약품 특허 만료를 앞둔 가운데 베트남 제약사들은 고기술 제네릭(Generic) 및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생산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 주력 의약품의 특허가 한꺼번에 만료되어 복제약 경쟁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현상

- 현재 베트남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 수입 의존도가 80%~90%에 달하고 이 중 90%가 중국·인도산으로 공급망 취약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의약품 수요의 80%를 자국 생산으로 충당하고 원료의약품(APIs) 자급률 20%~3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The Investor. 2026.07.15.;Asian News Network. 2026.07.20.]

11 미국 FDA 의약품평가연구센터, 2026년 가이드선 의제 업데이트 ... 신규 지침 추가

- 미국 식품의약국(FDA) 의약품평가연구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가 2026년 연간 가이드선 의제(Guidance Agenda)*를 2월과 7월에 업데이트하며, △AI △디지털헬스 △전자 안전성 보고 분야 신규 지침을 잇달아 추가함

* CDER이 해당 연도에 발행 예정인 신규·개정 가이드선 목록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

- 2월 업데이트에서는 의약품 제조 분야 △AI·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 품질 고려사항 지침 △디지털헬스 기술(Digital Health Technology, DHT)** 임상시험 활용 지침이 신규 추가됐으며, 7월 업데이트에서는 △AI 기반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증(Computer Software Assurance, CSA)*** 보충 지침 △시판 후 전자 안전성 보고서 제출 지침 등 4개 항목이 추가됐음

** 웨어러블 및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임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기술

*** 의약품 제조 및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품질·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

- 7월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AI 기반 시스템 CSA 보충 지침은 2025년 1월 공개된 「의약품 및 생물학의약품의 규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AI 활용 고려사항(Considerations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Support Regulatory Decision-Making for Drug and Biological Products)」 초안 가이드선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CDER은 목록에 구속되지 않고 추가 가이드선을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음
- FDA가 2026년 한 해 동안 △AI △디지털헬스 △전자 안전성 보고 분야 가이드선을 잇달아 강화하는 흐름은 AI가 의약품 △개발 △제조 △안전 감시 전 과정에 통합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줌

[RAPS, 2026.02.25.; RAPS, 2026.07.16.]

12 일라이 릴리, 최대 38억 달러 규모 아타이베클리 인수

-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미국 바이오텍(Biotech) 아타이베클리(AtaiBeckley)를 최대 38억 달러(한화 5조 6,902억 원) 규모로 인수해 치료저항성우울증(Treatment Resistant Depression, TRD)*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함



* 두 가지 이상의 항우울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우울증

- 계약에 따라 일라이 릴리는 선지급금 28억 달러(한화 4조 1,928억 원)를 지급하고 특정 마일스톤(Milestone) 달성 시 최대 10억 달러(한화 1조 4,974억 원) 규모의 조건부가치권(Contingent Value Right, CVR)**을 추가 지급할 예정임

** 특정 조건이나 성과 목표를 달성할 경우 추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

- 아타이베클리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BPL-003***'은 5-메오-디엠티(5-MeO-DMT)**** 기반 비강분무형(Intranasal Spray)***** 치료제로 임상 2a상에서 투여 이틀째 66.7%의 환자에서 우울 증상 완화 반응이 나타났고 해당 효과는 85일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음

*** 강력한 환각 효과를 지닌 향정신성 화합물의 합성 유도체

**** 두꺼비 독이나 일부 식물에서 발견되는 트립타민(Tryptamine) 계열의 향정신성 물질로 강렬하고 짧은 환각 경험을 유도함

***** 약물을 코 점막을 통해 흡수시켜 전신에 빠르게 전달하는 투여 방식

- 이번 인수는 미국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의 향정신성 치료제 스프라바토(Spravato) 매출 성장과 미국 제약사 애브비(AbbVie)의 미국 바이오텍(Biotech) 길가메시 파마슈티컬스(Gilgamesh Pharmaceuticals) 인수 등 빅파마(Big Pharma)의 향정신성 치료제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이뤄짐
- 이번 인수는 지난 4월 미국 백악관의 향정신성물질 치료제 개발 촉진 행정명령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2032년 관련 시장 규모가 최대 70억 달러(한화 10조 4,82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려 정신건강 치료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BioSpace, 2026.07.16.; Yahoo Finance, 2026.07.17.]

13 독일 연방의회, 법정건강보험 재정개혁 법안 가결

- 독일 연방의회(German Bundestag)는 법정건강보험(Statutory Health Insurance, GKV)* 재정개혁 법안을 찬성 318표 반대 284표로 가결해 제약사 리베이트(Rebate)** 확대 등 강력한 의료비 절감 조치를 담은 개혁을 단행함

*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의료보험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급여의 일정 비율을 분담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

**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 후 건강보험 등 지불 주체에 사후 환급하는 금액

- 이번 개혁안은 제약사가 건강보험에 지급하는 의무 리베이트를 인상하고 병원비 중 보험사에 전가되는 비용을 제한하며 향후 지출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에 연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독일 총리는 이번 개혁으로 160억 유로(한화 27조 3,565억 원) 이상을 절감해 법정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밝힘
-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미국 제약사 화이자(Pfizer) △독일 제약사 머크(Merck) 등은 이번 개혁이 장기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를 표명함
- 독일 연구기반제약기업협회(Verband Forschender Arzneimittelhersteller, VFA)의 회장은 이번 법안이 혁신 치료제의 독일 내 공급을 위협하고 기업 투자 철수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함
- 이는 지난 6월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독일의 약가 정책 조사에 착수한 상황과 맞물려 독일 제약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Pharmaceutical Technology, 2026.07.13.; Yahoo Finance, 2026.07.14.]

14 YEIDA, 노이다에 의료기기단지를 조성해 메드테크 제조 허브로 육성

-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주 야무나 고속도로 산업개발청(Yamuna Expressway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YEIDA)은 노이다 국제공항(Noida International Airport) 인근에 350에이커(Acre) 규모의 노이다 의료기기단지(Medical Device Park)를 조성해 북인도 최대 메드테크(MedTech) 제조 허브로 육성함
- 이 단지는 산업용 부지 120개를 이미 분양했고 20곳 넘는 기업이 공장을 짓는 중이며, △AI 실험실 △신속 시제품제작(Rapid Prototyping) 시설 △공동창고까지 갖춰 입주 기업들이 나눠 쓸 수 있게 함
- 조성 계획은 지난달 노이다 의료기기단지 부지에서 열린 ‘메드테크 투자자 미팅 및 현장 방문 2026(MedTech Investors Meet & Site Visit 2026)’에서 공개되었으며, YEIDA 부청장은 이 단지가 앞으로 북인도의 핵심 제조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공항에서 3km 거리에 있어 물류와 수출에 유리한 입지를 갖췄으며 인도공과대학교 델리(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Delhi, IIT Delhi)와 칸푸르(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Kanpur, IIT Kanpur) 같은 명문대학교들이 연구 협력에 나섰고 입주 기업에는 △자본 이자 보조금(Capital Interest Subsidy)* △인지세 면제 △품질인증 지원 등의 정부 혜택도 주어질 예정임

* 설비투자를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지원 제도

- 다양한 메드테크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의료기관 메디컬 엑셀런스 재팬(Medical Excellence Japan, MEJ)와 양해각서를 맺고 우타르 프라데시 주 주총리가 일본을 직접 찾아 투자를 권하면서 일본발 투자 유치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을 보여줌



[Times of India, 2026.07.17.; Medical Buver, 2026.07.20.]

15 뉴러클 메디컬 테크놀로지, 세계 최초 상업용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이식 수술 시행

- 중국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BCI)* 기업 뉴러클 메디컬 테크놀로지(Neuracle Medical Technology)는 자사의 침습형 BCI 기기 'NEO'를 활용해 세계 최초의 상업용 이식 수술을 시행함

博睿康

* 뇌 신경신호를 실시간으로 읽어 컴퓨터나 기기에 명령으로 전달하는 신경공학 기술

- 이번 수술은 중국 상하이(Shanghai) 화산병원(Huashan Hospital)에서 진행됐으며 10년 전 교통사고로 척수를 다쳐 손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던 환자에게 동전 크기의 뇌 칩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NEO는 뇌를 파고들지 않고 뇌 표면에 살짝 얹기만 하는 경막외(Epidural)**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뇌 신호를 안정적으로 읽어낸 뒤 이를 손 움직임으로 바꿔주며, 수술을 마친 환자는 별다른 이상 없이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짐

** 뇌를 감싸는 경막 바깥쪽에 위치한 부위로 뇌 조직에 직접 침투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식 부위

- 또한, 지난 3월 13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의 허가를 받으면서 실험실과 임상시험 단계를 벗어나 최초로 상업 처방이 가능한 BCI 기기가 됨
- 허가 이후 4개월 만에 △생산 △병원 도입 △환자 선별 △지역 상업 의료보험 적용까지 마친 이번 사례는 미국 BCI 기업 뉴럴링크(Neuralink)와 경쟁하는 중국 신경공학 산업의 성장 속도를 단적으로 드러냄

[Gizmodo, 2026.07.15.;msn, 2026.07.17.]

16 글로벌 특수 화장품 원료 시장, 2033년 223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영국 시장조사기업 퍼시스턴스 마켓 리서치(Persistence Market Research)는 글로벌 특수 화장품 원료 (Specialty Cosmetic Ingredients)* 시장이 2026년 163억 달러(한화 24조 4,088억 원)에서 2033년 223억 달러(한화 33조 3,927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유연제(Emollients) 등 특정 기능이나 효과를 내기 위해 정제·가공된 고부가가치 화장품 원료

- 연평균 성장률은 4.6% 수준으로 예상되며 클린뷰티(Clean Beauty)** 트렌드와 생명공학 기반 원료 혁신이 이 같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인공 성분을 배제하고 성분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소비 트렌드

- 원료 유형별로는 표면활성제(Surfactants)***가 2026년 29%의 점유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펩타이드나 식물 추출물처럼 기능성이 강조된 활성 성분(Actives)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세정 △유화 △기포 형성 등 화장품 제조에 필수적인 기초 원료

-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이 약 39%의 점유율로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MoCRA)****'시행과 클린뷰티 열풍에 힘입어 북미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지역으로 주목됨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제정한 법률

- 실제로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L'Oréal)은 인도 뷰티 기업 이노비스트(Innovist)의 경영권 확보에 나서면서 약 13년 만에 인도 기업 인수를 추진했으며,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뷰티 시장에 대한 로레알의 장기적인 사업 확대 의지를 보여줌
- 업계는 생명공학 기반 원료와 지속가능한 활성 성분 개발에 주력하며 전략적 제휴와 생산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Persistence Market Research, 2026.06.;EIN Presswire, 2026.07.15.]

17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바탕으로 중동 의료관광 허브로 성장 가속화

- 사우디아라비아가 △글로벌 수준의 의료 인프라 △전략적 지리적 위치 △경제 다각화 노력을 바탕으로 「비전 2030(Vision 2030)」*을 추진하며 중동 의료관광 허브로 성장하고 있음

*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 다각화를 이루고, 사회·문화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수립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장기 발전 계획



- 선진국의 △높은 의료비 △긴 대기시간 △질 높은 치료 수요 확대로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이 연평균 14%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의료관광 시장도 2025년 96억 달러(한화 14조 3,753억 원)에서 2034년 225억 달러(한화 33조 6,921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료관광 시장은 2024년 2억 달러(한화 2,994억 8,600만 원)에서 2030년 6억 8,000만 달러(한화 1조 181억 원)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건부문 전환 프로그램(Health Sector Transformation Program, HSTP)’ 등 비전 2030 정책의 결과로 분석됨
- 사우디아라비아는 리야드(Riyadh)와 제다(Jeddah) 등 주요 도시의 첨단 인프라와 △심장학 △종양학 △정형외과 분야의 글로벌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합 수술 △재생 의학 △웰니스 리트리트(Wellness Retreat)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집중 공략할 계획임
- 이에 따라 ①글로벌 마케팅 ②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인센티브 확대 ③인력 개발 ④의료 비자·관광 패키지 연계 ⑤AI 진단 및 스마트병원 기술 활용 등 5개 전략의 우선 추진이 필요함

[Arab News, 2026.07.17.; Eurasia Review, 2026.07.18.]

18 탄톡생병원, 헬스테크엑스 아시아 2026에서 ‘가상 우선 심리스 케어’ 모델 제시

- 싱가포르 탄톡생병원(Tan Tock Seng Hospital) 임상정보 최고책임자는 ‘헬스테크엑스 아시아 2026(HealthTechX Asia 2026)’에서 「24/7/365/360」 헬스케어 비전을 제시함



- 책임자는 원격의료(Telehealth)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가상 돌봄(Virtual Care)은 의료진과 환자가 상호작용하는 경험 전체를 의미한다고 강조함
- 관련 연구에 따르면 환자 74%가 의료진과의 비대면 소통에 편안함을 느끼고 67%는 원격의료로 진료 만족도를 높이는 등 인식 변화를 입증함
- 또한, 환자가 어디서든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 ‘가상 우선(Virtual-First Care, V1C)’ 모델과 의료진이 장소와 무관하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심리스 케어(Seamless Care)’를 결합한 ‘가상 우선 심리스 케어(Virtual-First Seamless Care, V1SC)’ 모델을 제안함
- 해당 모델은 일반의 진료 후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환자가 수 시간~수일 내에 부스형 진료 공간인 텔레포드(Telepod)를 통해 원격진료가 가능하며, 이는 싱가포르의 ‘헬시어 SG(Healthier SG)*’ 전략의 방향성에도 일치함

* 일차의료 중심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예방적·지속적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싱가포르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가 추진하는 국가 보건 전략

- 책임자는 향후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 지원 체계가 보편화되고 가상 돌봄이 ‘어디서나 가능한 헬스케어’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의료진의 역할이 축소되기보다 환자의 자가 관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함

[Hospital Management Asia, 2026.06.24.; GovInsider, 2026.07.15.]

19 아주라이트 메디컬 앤드 웰니스, 호주 수술관광객 대상 확장형 사후관리 프로그램 출시

- 호주 브리즈번(Brisbane) 내 의료관광 기업 아주라이트 메디컬 앤드 웰니스(Azurite Medical & Wellness)가 태국 방콕(Bangkok)에서 성형 및 재건 수술을 받는 호주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확장형 사후관리 프로그램(Extended Aftercare Program)을 출시함
- 기존 의료관광 지원은 퇴원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해당 프로그램은 방콕 현지 관리와 호주 귀국 후 원격 모니터링을 결합해 회복 전 기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업은 회복 단계가 고객에게 가장 세심한 케어와 심리적 안정이 요구되는 시기이자 기존 제공업체들의 지원 공백이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설명하며, 방콕 도착 시점부터 귀국 후 수 주까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설계함
- 프로그램은 방콕 체류 중 대면 사후관리와 수술팀과의 직접 조율을 포함하며, 귀국 후에는 일정에 따른 원격 점검을 통해 회복 상태를 추적하고 문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이 외에도 △상처 관리 △활동 수준 △회복 단계별 지침 등을 포함한 회복 가이드의 지속적 제공 및 고객이 회복 기간 중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는 지원팀 직통 연락망도 제공함
-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아주라이트 메디컬 앤드 웰니스가 방콕 수술 파트너와의 조율을 대신 진행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신규 수술 고객을 대상으로 즉시 적용됨



[EIN Presswire, 2026.07.15.;Azurite Medical & Wellness, 2026.07.]

20 미국 뉴욕, 중동·중남미·아시아 부유층 의료관광객 증가하며 럭셔리 헬스케어 허브로 주목

- 미국 뉴욕(New York)이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지의 부유층 의료관광객이 증가하며 프리미엄 헬스케어 및 럭셔리 여행 허브로 주목받고 있음
- 외국인 환자는 미국 입국 시 B-2 임시방문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 발급이 필요하며, 연방 국경 당국이 이들을 포괄적 방문객 범주로 분류함에 따라 정확한 의료관광 입국자 수는 공개되지 않음

* △관광 △친지 방문 △치료 등 일시적인 목적으로 미국을 단기 방문할 때 발급받는 비이민 비자

**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가입 국가의 국민이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해주는 온라인 전자여행허가 제도

- 미국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에 따르면 △의료 △교육 △단기근로자 항목이 매월 미국 전체 여행·관광 수출의 29%~30%를 차지하고 관련 규모는 60억 달러~65억 달러(한화 8조 9,845억 원~9조 7,333억 원)로 집계되며 대부분 뉴욕으로 유입됨
- 실제로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는 소아과 및 심장 치료를 위한 정부 지원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중국 △인도의 부유층도 선택적 수술(Elective Surgery)***과 유전자 치료를 위해 뉴욕을 방문함

*** 응급 상황이 아니어서, 환자와 의사가 상의해 미리 일정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료 처치

- 뉴욕이 세계적 임상시험과 첨단 의료 기술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며, 프리미엄 헬스케어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을 나타냄

[Hotel Online, 2026.05.07.;Travel And Tour World, 2026.07.16.]

21 덴트스파 클리닉, 글로벌 치과 의료관광 환자 경험 부문 GHA 인증 획득

- 튀르키예 이스탄불(Istanbul) 내 치과 클리닉 덴트스파 클리닉(DentSpa Clinic)이 글로벌 헬스케어 인증기구(Global Healthcare Accreditation, GHA)로부터 '의료관광 환자 경험 우수 인증(Certification for Excellence in Medical Travel Patient Experience)'을 획득함



- 덴트스파 클리닉은 이스탄불 시슬리(Şişli) 지구 내 △임플란트 △전악 재건(Full Mouth Rehabilitation)* △구강악안면외과(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OMS)** 등 외국인 환자 치과 치료에 특화된 의료관광 모델을 운영함

* 위아래 모든 치아의 기능과 모양을 종합적으로 회복하는 포괄적인 고난도 치과 치료

** △입 △턱 △얼굴(악안면) 부위의 질환, 외상, 기형 등을 외과적 수술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치과의 전문 분과

- 또한, △임상 평가부터 △치료 계획 △소통 △교통 및 숙박 지원 △사후관리까지 통합적 조율 체계와 약 150명의 콜센터 상담원 및 20명 규모의 의료자문팀 등의 운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 덴트스파 클리닉 최고경영자는 이번 인증이 축적되어 온 외국인 환자와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으며, 임상 우수성과 첨단 기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환자 경험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함
- GHA 최고경영자는 덴트스파 클리닉이 임상 케어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 제공 △체계적인 진료 조율 △문화적 배려 △운영의 투명성 △신뢰할 수 있는 사후관리까지 보유한 사례라고 평가함
- 이스탄불 내 외국인 치과 환자를 위한 신뢰받는 진료기관으로서의 입지 강화와 튀르키예가 의료 및 치과 관광의 주요 목적지로 성장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Dentistry Today. 2026.07.16.:PR Newswire. 2026.07.16.]

22 마야파다병원 쿠닝안,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인터내셔널 케어 컨시어지' 출시

- 인도네시아 마야파다 헬스케어(Mayapada Healthcare) 산하 종합병원 마야파다병원 쿠닝안(Mayapada Hospital Kuningan, MHKN)이 개원 6주년을 맞아 외국인 환자 전담 지원 서비스 '인터내셔널 케어 컨시어지(International Care Concierge)'를 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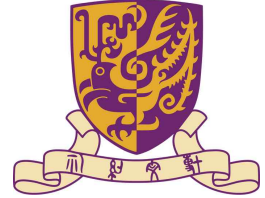


- 해당 서비스는 자카르타(Jakarta) 쿠닝안(Kuningan) 지역에 거주 및 근무하는 △주재원 △외교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영어 △중국어 △아랍어 등 다국어 구사가 가능한 의료진과 직원이 통합적인 환자 지원을 제공함
- 또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치료 완료까지 △진료 예약 △진료과 간 조율 △행정 절차 지원 등을 담당하며 소통과 환자 이동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마야파다병원 쿠닝안 원장은 대사관과 국제기구, 다국적기업이 집중된 쿠닝안의 지역적 특성상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 서비스 도입 배경을 설명함
- 따라서 △병원 △대사관 △외교 커뮤니티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전반적인 환자 경험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사례는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 외에도, 현지 거주 외국인 커뮤니티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신뢰 확보의 핵심 요소로 작용됨을 보여줌

[CNN Indonesia. 2026.07.16.:Indonesia Expat. 2026.07.17.]

23 홍콩중문대-광저우, 웨강아오 대만구 최초 글로벌 임상시험센터 설립

- ①홍콩중문대학교(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CUHK) ②광저우(Guangzhou) 난사구(Nansha District) 인민정부 ③광저우제일인민병원(Guangzhou First People's Hospital)이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GBA) 최초의 글로벌 임상시험센터인 '웨강아오 대만구 임상시험센터(Greater Bay Area Clinical Trial Centre, Guangzhou Nansha)' 설립 협약을 체결함
- 센터는 국가 규정 및 글로벌 기준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를 수행하고, 홍콩-광저우 간 다기관·초국경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인재 양성 및 학술 교류 플랫폼 역할도 담당할 예정임
- 1차 핵심 연구 과제로 △휴대용 무방사선 3D 표면 촬영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AIS) 선별검사 기술의 실제 임상 현장 검증 △동종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s, MSCs) 치료를 활용한 무릎 골관절염 치료의 1상 임상시험이 진행됨
- 그리고 △광저우제일인민병원 △난사구 위생건강국(Health Bureau) △홍콩중문대 의학대학원이 공동 설립한 '웨강아오 대만구 근골격 재활센터(GBA Musculoskeletal Rehabilitation Center)'도 출범해 △근골격계 질환 △스포츠 손상 △척추측만증 분야의 정밀재활 서비스와 연구, 전문인력 교육을 추진함
- 임상시험센터 설립은 홍콩과 광저우 간 △임상연구 △의료혁신 △인재 양성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웨강아오 대만구 내 의료 통합과 글로벌 의료혁신 허브로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CUHK, 2026.07.15.;BioSpectrum Asia, 2026.07.22.]

24 지텍 메디컬 투어리즘, 방글라데시 환자를 위한 중국 병원 연계 서비스 확대

- 방글라데시 지텍 항공(GTech Aviation Ltd) 계열사 지텍 메디컬 투어리즘(GTech Medical Tourism)이 간소화된 의료비자 절차와 글로벌 전문 치료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방글라데시 환자와 중국 주요 병원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 지텍 메디컬 투어리즘 상무이사는 방글라데시 환자에게 안정적인 치료와 신뢰할 수 있는 사후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검증된 중국 병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
- 초기에는 40개 이상의 병원과 협력을 시작했으나, 환자 피드백과 품질 평가를 거쳐 검증된 우수 기관 약 15곳으로 네트워크를 재편함
- 또한, 중국이 △선진 의료 기술 △숙련된 전문의 △합리적인 치료 비용으로 매력적인 목적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치료 비용은 인도보다 높지만 싱가포르 및 태국보다는 낮은 수준임
-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국으로 향하는 방글라데시 환자 중에서는 뇌 및 폐 종양 등 암 치료 비중이 가장 크며, 정형외과 수술과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도 주요 수요 분야로 나타남
- 지텍 메디컬 투어리즘은 현지에서 중국 병원 관계자와 정기 세미나 및 매주 금요일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환자 결정 후에는 △병원 선정부터 △의료비자 △항공 및 숙박 △통역 서비스 △귀국 후 후속 상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함
- 따라서 해당 서비스 확대는 방글라데시 의료관광 시장에서 중국이 인도 및 태국 등 기존 주요 목적지를 대체할 대안으로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며, 향후 맞춤형 환자 지원 서비스가 의료관광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됨



[The Bangladesh Monitor, 2026.07.16.]

무역통상

의료 인공지능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의료서비스

글로벌 행사



2026 병원 약국 바이어 컨퍼런스

2026 Hospital Pharmacy Buyer Conference

- 개최도시 미국 올랜도
 행사일정 2026.08.09.~2026.08.10.
 행사주제 공급자와 바이어를 하나로
 주요내용 △ACPE 인증 CE 크레딧 교육 세션 △네트워킹 △공급업체와의 1:1 매칭 방식인 바이어 라운지 등을 운영하며, △원가 절감 △신제품 △신기술 △의료서비스 등 병원 약국 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초점



메디케이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즈 컨퍼런스 2026

Medicaid Enterprise Systems Conference 2026(MESC 2026)

- 개최도시 미국 포틀랜드
 행사일정 2026.08.17.~2026.08.20.
 행사주제 메디케이드 시스템 혁신과 정책을 논의하는 국가 협력 플랫폼
 주요내용 △주정부 △연방정부 △민간 부문 전문가가 모여 메디케이드 시스템 및 관련 보건 정책을 논의하며 △메디케이드 시스템 조달·운영·모듈화 △의료정보기술 (HIT) △진료정보교환(HIE) 등 주요 트랙 운영



엠디디바이스 보스턴 2026

MEDevice Boston 2026

- 개최도시 미국 보스턴
 행사일정 2026.08.26.~2026.08.27.
 행사주제 대화에서 시작되는 메드테크 혁신
 주요내용 미국 동부 최대 의료기기 혁신 엑스포로, 17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 △제품 발굴 △파트너십 △AI △규제 트렌드 등을 다루는 메드테크 전문 행사



메드테크 월드 아시아 2026

MedTech World Asia 2026

- 개최도시 중국 홍콩
 행사일정 2026.08.26.~2026.08.28.
 행사주제 아시아·태평양 메드테크 혁신과 투자를 위한 글로벌 서밋
 주요내용 △투자자 △스타트업 △병원 △규제기관이 모여 △AI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혁신을 논의하고 투자 매칭 및 피칭, 어워즈 프로그램 운영



2026 트레이서빌리티 세미나

2026 Traceability Seminar

- 개최도시 미국 워싱턴 D.C.
 행사일정 2026.08.31.~2026.09.02.
 행사주제 헬스케어 공급망 리더들의 연례 세미나
 주요내용 헬스케어유통연맹(HDA)이 주관하는 의약품 공급망 추적성 전문 세미나로, △의약품 공급망 보안법(DSCSA) 이행 △규제 동향 △국가약품코드(NDC) 전환 등 제약 공급망 핵심 현안을 다루는 연례 행사